

禪王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

사경의 變相畵의 내용분석

The Study on Byunsangwha of Some 7 Volumes Sets of
Saddharmapundarika Sutra Manufactured Since King Woo of Koryo Dynasty

권 희 경 (Kwon, Hi-Kyung)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결 론 |
| 2. 禪王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 變相畵의 내용분석 | <參考文獻> |

< 초 록 >

禪王 이후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寫經 중에서 각 권마다 변상화가 있는 작품으로 가장 시대가 빠른 완질본의 사경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소장본이 있으며, 또한 제7권의 발원문을 통해 우왕 11년(1385)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의 4권이 있다. 이들 사경은 세권이 결본이기는 하나,년대 확실한 사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 연구에 함께 넣어 고찰코자 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來蘇寺소장으로 國立全州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완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제1권과 제7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2·4·5·6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3권이 결본인 세종 4년(1422)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도 고려 禪王이후에 제작된 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변상내용 분석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이들 2질의 조선 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사경은 조선시대의 사경들이라고는 하지만, 고려의 전통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함시켰다.

이들 4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사경변상은 忠肅王 이후 계속되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향후에는 얼마간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설법도의 틀 속에 있었고, 항좌의 내용은 복잡하게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各卷에 수록된 各品의 내용 중에서 『妙法蓮華經』의 가르침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설화적 내용을 情景의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러한 변상들은 아주 작게 그려진 부분에 이르기까지 『妙法蓮華經』의 廣宣流布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妙法蓮華經』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교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전공 교수 (hkkwon@hanmail.net)

접수일: 2004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Among the seven volumes sets of Saddharmapundarika-sutra manufactured since King Woo of Koryo Dynasty, the oldest and complete one in which Byunsangwha was drawn on every volume is the set of Horim Museum collection manufactured in the third year of King Woo (AD 1377) and 4volumes of 7volumes set of Saddharmapundarika-sutra of Korea National Museum collection whose manufactured era was certificated to be in 11th year of King Woo by the praying sentence of the seventh volume.

Though this set was lacked 3volumes, because of it's certain manufactured era it would be an important source to study the scrip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udy Byunsangwha of 7volumes sets of Saddharmapundarika including this set.

In addition though they were not manufactured in Koryo Dynasty, a complete seven volumes set of Saddharmapundarika-sutra under the charge of National Cheonju Museum of Resosa(來蘇寺) collection which was manufactured in 15th year of Tejong (AD 1415) in Yi Dynasty and a 7volumes set of Saddharmapundarika-sutra which was manufactured in 4th year of Sejong (AD 1422), though it was lacked 3 volumes, should be a essential source for studying Byunsangwha of 7volumes set of Saddharmapundarika-sutra manufactured since King Woo. As these two 7volumes sets of Saddharmapundarika-sutra manufactured in early Yi Dynasty should be important sources, even they were manufactured in Yi Dynasty but in Koryo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Byunsangwha of four 7volumes sets of Saddharmapundarika-sutra succeeded to the tradition holding on since King Chunguk of Koryo Dynasty as it was. Owing to this,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 content of right side of painting is a little different, but it would be basically contained in the formality of the painting of Buddhist sermon. Nevertheless the content of left side of painting was drawn complicatedly, it is possible to know that in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in every volume, a fable content that can explain most clearly the teaching of Saddharmapundarika-sutra was selected and drawn as a paint of explaining fable.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at not only large part but also smallest part of painting becomes a instructively and easily explainable scene for teaching how difficult and valuable is the preaching widely Saddharmapundarika-sutra.

1. 서론

高麗寫經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중에서 각 권마다 변상이 있는 것으로 결본 없거나 혹은 1권에서 많게는 3권까지 결본이 있기는 해도 년대가 확실하여, 고려사경의 변상연구는 물론 고려사경의 편년연구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경이 8월이나 된다. 이들 중 충숙왕 이후 공민왕대에 이르기 까지 제작된 일본에 유존되고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4 질 사경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므로¹⁾ 여기서는 국내에 유존되고 있는 우왕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사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시대가 빠른 사경은 禡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소장본(이후 湖林本으로 칭함)은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완질본이다 같은 禡王代의 작품으로 제7권의 발원문을 통해 同王 11년(1385)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중, 남겨진 네 권 사경도(이후 국립중앙박물관본으로 칭함)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다.²⁾ 우왕 11년에 제작된 이들 사경은 년대 확실한 사경이 드문 고려사경의 연구에 있어 비록 결본이 3권이나 되지만, 연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연구에 함께 넣어 연구코자 하였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來蘇寺소장으로 國立全州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이후 내소사본으로 칭함)완질본과 세종 4년(1422)에 제작되어 麻谷寺와 廣德寺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오던 사경으로 현재 제1권과 제7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2·4·5·6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 제3권이 결본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³⁾(제

1) 권회경,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畵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7 권, 서지학회 2004.

2) 이들 4권의 사경은 제7권을 제외한 3권에는 발원문이 없어 이들 작품이 과연 제7권과 한 질인지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않으나, 표지화와 변상화의 양식에 의해서도 한 질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덕수궁 소장의 작품들로서 작품에 부쳐진 제2권의 덕 2467, 제3권의 덕 2468, 제5권의 덕 2469, 그리고 제7권에 2470이라고 불려진 번호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문명대·박도화, 「광덕사 묘법연화경사경변상화의 연구」, 『佛敎美術研究』 東國大學校 佛敎美術文

1권은 마곡사본 그 이외의 것은 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 廣德寺本 으로 칭함 도 고려 禪王 이후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변상내용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들 2질의 『妙法蓮華經』 사경은 조선시대의 사경들이라고는 하지만 고려의 전통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포함시켰다.

2. 禪王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變相畫의 內容분석

(1) 제1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소장본



禪王 이후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樣式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양식분석은 별도로 행하고자 하므로 여기에서 생략코자 한다.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松江 大乘寺本과 同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小浜 羽賀寺本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향우에 그려진 설법도에서는 聖

化財研究, 1995. 1) pp.8-9.

제1권과 7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은 이들 사경은 동국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제1권은 마곡사본이라 하고,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은 廣德寺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제1권은 마곡사에 보관되어 전해져 내려왔으며, 제2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까지는 廣德寺가 보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衆 배면에 나타나던 전각⁴⁾이 忠惠王 복위 원년(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本 이나,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本 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에 이르면 이미 사라지고, 전각이 그려지던 부분에는 地雲紋과 螺線集線紋으로 채워진다.⁵⁾ 이러한 특징은 이 사경변상 이후 계속 된다. 이 사경변상의 설법도에는 여래 위쪽으로 연관의 일부만이 보이고, 이 연관을 중심으로 아래쪽과 양 옆으로 연화가 가득 그려지며, 그 아래쪽은 集線波狀紋으로 해결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 부분에서는 계단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화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鍋島家本에서 제4권에 나타났지만, 전체가 화문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역시 새로운 양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湖林本 이후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양식적 특징의 연구」에서 별도로 고찰코자 한다.

「序品」의 「佛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빛이 동방 1만 8천세계를 비춘다」는 내용을 그린 여래의 髻珠로부터 퍼져 나간 제1·제2의 광명은 2페이지 상부에서 끝이 나고 있다. 이는 忠惠王 복위 원년(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本 과 日本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根津美術館本 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하다.⁶⁾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사경에서는 「序品」중에 「또 보니 어떤 보살 숲 속에서 광명 내어 지옥고통 제도하니 (하략)」라는 내용을 그린 제3의 광명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鍋島家本에서 출발된 양식이다.⁷⁾ 忠肅王代에 제작된 두 작품에서는 수미단 바깥쪽에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다 餓鬼圖와 阿修羅圖·畜生圖·地獄圖가 그려진 데 비해⁸⁾, 鍋島家本에서는 수미단 바깥으로 성곽을 그려, 佛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빛이 동방 1만 8천

4) 권희경,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변상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書誌學會第2輯) pp.239-244.

5) 상계서, pp.244-246.

6) 상계서, pp.244-246.

7) 상계서, p.245.

8) 상계서, p.241, 243.

의 세계를 비춘다는 내용 중에 제2광명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根津美術館本 오면 성곽이 좀 더 크게 그려졌었다. 禪王 3년에 제작된 이 사경변상에서는 이러한 鍋島家本の 전통을 계승한 根津美術館本の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단 제2광명 중 地獄圖에 해당하는 부분과 숲 속에 어떤 보살이 낸 제3광명의 餓鬼圖와 阿修羅圖·畜生圖·地獄圖부분을 하나로 합쳐 그리고 있다. 숲속의 보살 쪽에서는 광명을 나타내는 광선의 표현이 보이지 않지만, 파도문양 같기도 하고 겹겹이 쌓인 산 모양 같기도 한 문양을 뚫고 나온 광명의 표현은 확연히 보인다. 이러한 파도문양 같기도 하고 산 모양 같기도 한 문양은 忠肅王代의 두질의 『妙法蓮華經』에서는 여래의 髻珠로부터 나온 상하로 그려진 두 줄의 광명 중간에 두 줄기의 빛을 구분하기 위해 나타났었다. 일단은 수미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鍋島家本과 根津美術館本에서는 사라지게 되는데,⁹⁾ 이 湖林本에 오면 숲 속의 보살과 佛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제2·3광명의 내용이 그려진 사이의 황으로 된 공간을 메우기 위해 그려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湖林本에서는 天上圖가 유난히 적게 그려지는 것도 이 사경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시기에 이르면 지옥에 대한 교훈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경보다 앞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사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래 좌상은 이 사경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향좌의 숲 속의 보살 아래쪽에는 鍋島家本에서 이미 나타났던 「序品」의 「천만 억 가지 가지 栴檀으로 지은 집과 여러 가지 묘한 침구 부처님과 스님께 보시하고」라는 내용을 그린 전각¹⁰⁾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각 안에는 여래와 보살들이 그려져 있고, 또한 鍋島家本에서 나타났던 「方便品」의 「꽃과 향과 幡蓋로써 공양하거나 사람을 시켜 풍악 울리고 북도 치고 소라 불며, 소저·통소·거문고·요령·바라 등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며…」의 내용을 그린 伎樂人들도 이 전각 밖으로 그려져 있어 佐賀本の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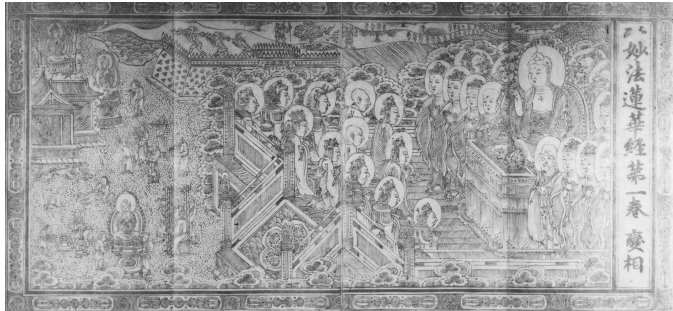
9) 상계서, pp.244-246.

10) 상계서, p.245.

수 있다.¹¹⁾

맨 아래 단에는 「方便品」의 불상제작과 불화제작의 공덕에 관한 내용이 그려져 있다. 향좌의 맨 아래쪽 구석에 탑을 그려 「만약 가지 탑 세우되 금과 은 파리들과 자거 마노들과 매괴 유리·진주 등으로 청정하게 장엄해서…」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나 탑이 아주 작게 그려지고 있다.

나)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 소장본



이 사경변상의 향우는 湖林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향우의 설법도 중 아래쪽으로 그려진 수미단이 제3페이지의 4분지 3정도 까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鍋島家本에서 이미 시작되어 湖林本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향우의 설법도의 내용 중에서 「序品」의 여래의 髻珠로부터 퍼져 나간 제1의 광명은 2페이지 상부에서 끝나고, 제2의 광명은 제3페이지 위쪽 끝까지 그려지고 있으나, 역시 간략하게 그려진다. 수미단 바깥쪽에는 별도로 城을 연상케 하는 담장이¹²⁾ 그려지고, 그 속에 餓鬼圖와 阿修羅圖·畜生圖·地獄圖를 그리고 있는 부분 역시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담장은 제4페이지까지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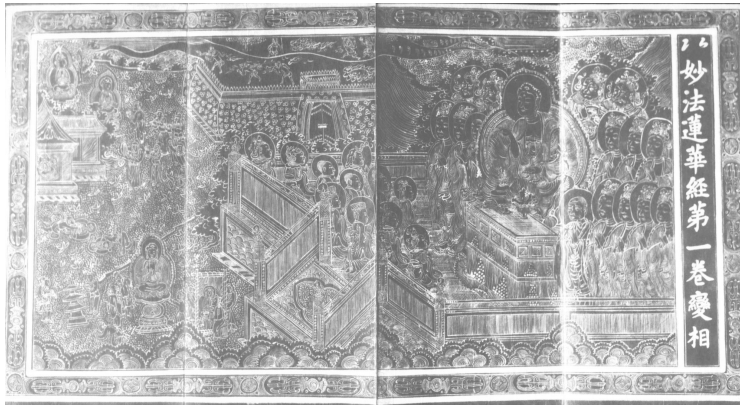
향우에는 제3의 광명인 숲 속의 보살에서 나온 광명을 佛의 미간으로부터 나온 제2광명과 연결시키고 있다.

11) 상계서, p.245.

12) 상계서, pp.244-246.

수미단 바깥으로 성곽을 그리고, 그 안에다 지옥도를 그린 점은 鍋島家本 이후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³⁾ 그러나 이 역시 간략하게 그려 넣고 있다. 숲 속의 보살 옆으로 수미산이 그려지나 숲 속의 보살로부터 나온 제 3의 광명아래쪽으로 그려진다. 다만 이 사경에서는 「백복으로 장엄한 부처님 상 그릴 적에 본인이 하나, 남을 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 · 나무 · 붓이거나 혹은 꼬챙이로 부처모양 그린 이들 (중략) 모두 성불 하였나니」라는 내용의 불화제작의 공덕 중에서도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 나무 붓이거나 혹은 꼬챙이로 부처모양 그린 사람들이 (중략) 모두 성불 하였나니」라는 내용에 힘을 싣고 있는 듯, 땅에다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두 장면이나 그려져 있다. 이는 정식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도 화폭에 그린 것에 못지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대중화 · 민중화가 사회경향과 시대사상을 엿볼 수 있다.

다) 朝鮮 世宗 4년(1422)에 제작된 마곡사본



이 사경변상은 양식적으로는 차이를 보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鍋島家本 이후 根津美術館本, 湖林博物館本, 來蘇寺本 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향우의 설법도가 특히 향좌의 내용에 있어서 불상과 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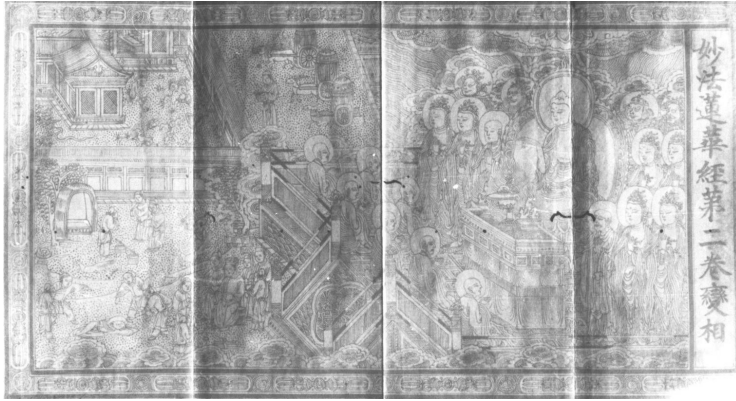
13) 상계서, p.244.

14) 상계서, pp.244-246.

의 제작에 관한 공덕을 그린 부분에 있어서 크기의 대소나 장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제2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향우는 제1권과 거의 같다.

이 사경변상에 이르면 향좌의 경우 양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화택의 장면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向左의 아래쪽의 장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譬喻品」중에 여우를 몽둥이로 쫓는 아이라든지 꼬아리를 튼 구렁이들은 생략되고 根津美術館本처럼 뱀이 화택 안에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信解品」의 窮子の 비유를 그린 부분에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이 기거하는 초막은 양식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나, 窮子の 집도 鍋島家本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鍋島家本の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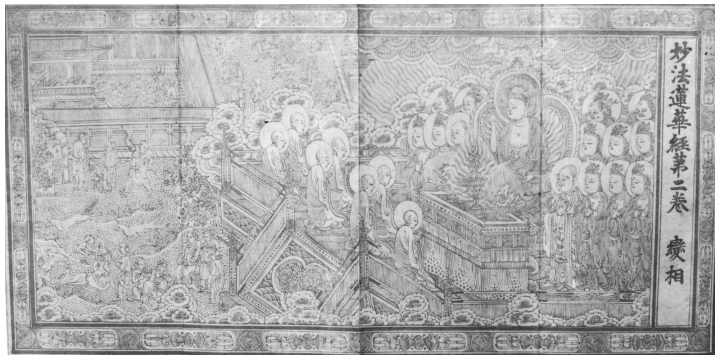
특히 「信解品」에서 장자 앞에 끌려와 기절을 한 窮子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현저

15) 상계서, p.249-250.

한 차이를 보인다. 한사람이 기질을 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4인의 인물이 기절한 窮子를 보고 당황해 하고 있다. 그 옆으로 獅子座에 앉은 부유한 長老와 그 권속들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경에서는 「譬喻品」 중에 一乘에서 분별하여 三乘을 준다는 것을 舍利佛에게 이룬 佛의 계승 중에서 경전을 읽고 쓰는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예를 줄줄이 열거한 내용 중에 하나로 만약 여우로 태어나면 온몸에 움과 버짐이 나고 심지어는 한눈까지 떨어져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애들 매를 맞고 모든 고통 다 받다가 잘못하여 죽게 되고...라는 내용을 그린 부분이 삭제되고 있다.

나) 禍王 11년(1385)에 제작된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本



향우는 湖林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다만 湖林本에서 아래의 광배부분에서 두 광과 신평속을 비워두고 있는데, 비해 이 사경에서는 세 겹으로 된 波狀集線紋을 等間隔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向左의 화택 아래쪽 그림에서 앞의 사경변상화들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세 번의 겹쳐 그리기로 땅을 나타냄으로써 훨씬 情景的인 인상을 주고 있다.

화택 안에도 뱀과 악귀 등이 그려져 있다.

화택 아래쪽으로 담장에 이어서 그려지고 있는 움막 앞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데, 긴 막대에 뚜껑이 있는 통을 끼워 매달고 운반하려는 듯한 모양으

로 그려져 있다.

이는 「信解品」중에 「부유한 장자가 50년 전에 집을 떠나, 끝없이 헤매다 돌아 온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데려오게 했으나, 두려워 기절하자 20년 동안 움막에 살게 하면서 오물을 나르는 일꾼으로 부리며 마음 편하게 지내게 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움막과 오물을 나르는 窮子의 비유를 그린 향좌에는 몽둥이를 든 사람이 살쥔이를 내려 치려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여우 두 마리가 향좌를 향해 달아나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 두 그림은 연결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譬喻品」에서 여래가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해 비유를 통해 舍利佛에게 이른 계승의 내용 중에 「만약 여우로 태어나면 온 몸에 움과 버짐이 가득하고 설상가상으로 한눈까지 멀어서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애들 매를 맞고 모든 고통 다 받다가 잘못하여 죽게 되고…」라는 내용과 「비유하면 어떤 장자의 집이 지은 지 오래되어 퇴락하고 낡아 위태롭게 기둥도 썩고 대들보도 기울고 축대도 무너져… 여우와 이리들이 이미 죽은 것을 서로 뜯고 찢어 넣어놓아 살과 뼈가 낭자하며…, 족제비 살쥔이 온갖 쥐와 이런 따위 나쁜 벌레 서로서로 기고 뛰며, 우글거리고…」라는 내용을 섞여서 그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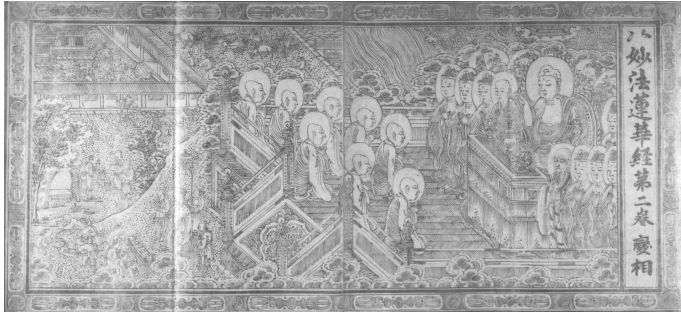
향우 아래쪽에는 한사람이 기절을 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3인의 인물이 각각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궁자를 깨우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거나, 그가 깨어나면 닦아주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있거나, 무엇인가 알 수 없으나 물건을 들고 서 있는 인물들이다. 「부유한 長老가 일찍 집을 떠난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 와서는 사자좌에 앉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사람을 시켜 아들을 데려오게 했더니, 아무 잘못도 없이 붙들려 왔다」고 기절해 버린 장면을 그린 것으로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옆으로 사자좌에 앉은 부유한 장자가 그려져 있고, 장자를 둘러싼 남녀가 그려져 있는 장면은 위의 羽賀寺本이나 鍋島家所藏本과 같다.¹⁶⁾

16) 상계서, pp.246-250.

이들 향좌에는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3인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자를 미워하면 개나 여우들로 태어나 매 맞아 죽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다)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이 來蘇寺本은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波狀集線紋이 더 넓게 그려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내소사본은 「譬喻品」이나 「信解品」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博物館本과 거의 같으나, 그 배치에 있어 얼마간의 차이를 보인다.

「譬喻品」火宅은 이전의 모든 寫經變相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차이를 발견하자면 화택 안에 기어가는 뱀과 지네 달아나는 여우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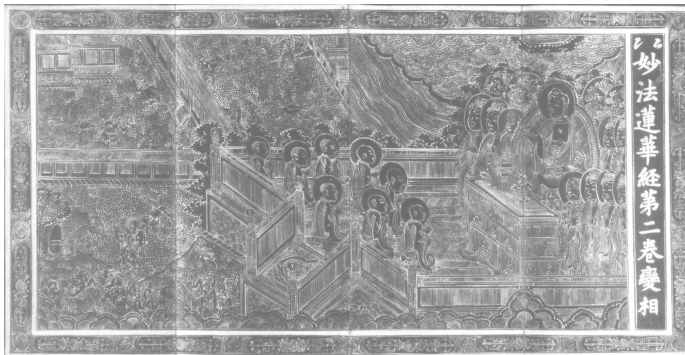
火宅 아래쪽의 그림은 궁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려져 있다. 화택의 담장에 이어 그려진 움막 앞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데, 각각 긴 막대에 뚜껑이 있는 바구니를 끼워 매달고 운반하려는 듯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점이라든지, 「窮子의 비유」를 그린 움막과 오물을 나르는 장면, 향좌에 몽둥이를 든 사람이 살쥔이를 내려치려는 순간의 인물을 그린 점은 국립중앙박물관본과 같으나, 그 아래쪽에 향좌를 향해 달아나고 있는 두 마리의 여우형상은 생략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그림을 중심으로 사격구도의 언덕이 그려지고, 아래쪽으로 「信解品」의 내

용 중 부유한 長老가 사람을 시켜 窮子를 데려오게 하자 죄 없이 끌려왔다고 기절한 窮子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주변에 3인의 인물이 이 그려져 있다. 각각 물을 뿌리고, 수건을 들고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 알 수 없으나 물건을 든 인물이 서 있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부유한 장자를 향해 앉아 있는 3인의 인물이 긴 책상 위에 법화경을 놓고 앉아서 읽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역시 『譬喩品』에 「법화경전을 읽고 쓰는 이를 미워하면 개나 여우들로 태어나 매 맞아 죽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라) 朝鮮 世宗 4년(1422)에 제작된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본



이 사경은 제4권, 제5권, 제6권과 더불어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에 소장되어 있다. 화택 아래쪽은 변상화의 내용은 내소사본과 거의 같으나, 화택 안에 악귀가 그려진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제3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향우는 제1권 제2권과 거의 같다.

향좌에는 설법도 위쪽으로 삼존상이 그려져 있고, 이 삼존상 앞으로 1구의 합장한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天倫寺本에서 협시를 거느리고 보탁을 앞에 놓고 보좌 위에 앉은 삼존상과 이러한 삼존상을 향해 합장을 하고 앉아 있던 4구의 인물이 그려지던 것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경에서는 天倫寺本에서 보이던 삼존상 향좌로 그려진 날아가던 와가¹⁷⁾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구의 여래만이 그려져 있다. 이는 天倫寺本에서 휘날리는 구름을 탄 2구의 여래와 구름위에 얹혀 날려가고 있는 3동의 瓦家가 횡선으로 처리된 배경 위에 나란히 그려지고 있던 『化城喻品』의 내용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옆으로 문이 반쯤 열린 化城이 그려져 있는데, 화성의 문은 담 모퉁이에 그려져 있다.¹⁸⁾ 화성의 향좌에는 담장에 붙여 연화좌 위에 서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는 화성을 만든 도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화성 옆으로는 등받이가 있는 높은 의자에 앉은 도사와 서고 앉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무서워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3백 유순을 지난 중도에서 하나의 성을 변화를 통해 만들어 몸과 마음을 즐겁게 가지도록 함으로 해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능히 갈 수 있음을 가르치

17) 상계서, p.252.

18) 상계서, p.252, p.254.

고,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 이미 제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성은 보물이 있는 성이 아니고 그대들을 휴식케 하기 위해 만든 化城이라는 점을 가르친 후, 다시 화성을 없애고, 이제 진정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깝다는 것을 일깨우는 「化城喻品」의 도사와 그의 안내를 받는 사람들을 그린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화성 아래쪽 향좌에는 입상의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化城喻品」을 설하는 대가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화성의 향우 담벼락에 걸쳐서 입으로부터 비를 뿜어내는 용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나무에 가린 가옥이 그려져 있으며, 가옥을 향해 도롱이를 입고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天倫寺本이나 羽賀寺本 이후 계속 되어 온 「藥草喻品」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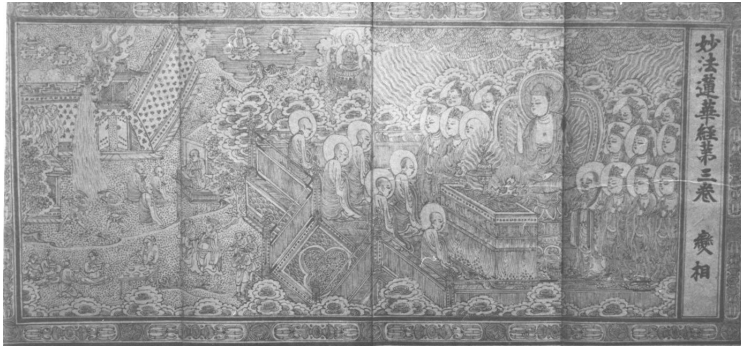
「藥草喻品」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도롱이를 입은 인물이 급히 쫓아가고 있는 바로 이 가옥 위쪽으로 숲이 그려지고, 화성의 담벼락과 이 가옥 사이에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화성유품」의 마지막 계송 중에 「동산 수풀과 시냇물과 목욕을 할 수 있는 연못이 있고, 重門과 높은 누각에 남녀들이 충만하고」¹⁹⁾의 내용으로 화성에 도착 한 것을 즐기는 인물들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恭愍王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本이지만, 이 사경으로부터 비로소 대나무 숲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래쪽에 선으로 화면을 구획지어 「授記品」 중에 대왕의 음식을 감식하는 장면을 그린 장면에서는 天倫寺本 이후 계속되어 오던 일산을 받쳐 든 시자는 보이지 않는다.²⁰⁾ 그러나 많은 시자들이 대왕을 둘러싸고 서 있으며, 대왕은 역시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는 점은 앞의 사경변상들과 같다. 대왕 앞에 보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며, 이 보탁 向左에는 대왕의 음식을 감식하는 무리들이 앉아 있다.

19) 有園林渠流及浴池, 重門高樓閣 男女皆充滿.

20) 상계서, p.251.

나) 禪王 11년(138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所藏本



향우의 양식은 제2권과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湖林本과 거의 같다. 다만 수미단 주변을 운문으로 가득 채운 것은 天倫寺本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향좌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3페이지 위쪽으로 앞서 계속 보이던 삼존상이 그려지고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는 3구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2구의 여래가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 있고, 화성 안에 구름에 얹혀 날아가는 瓦家가 그려져 있어, 호림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륜사본 이후 계속되어 온 그림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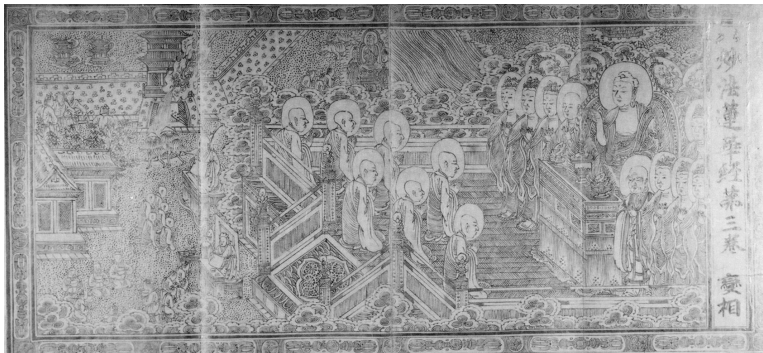
화성은 대문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모퉁이에 잇대어 있는 점도 湖林本의 전통이라 하겠다. 화성의 문 위에 그려진 용이 입으로 물을 뿜고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도롱이를 입은 2구의 인물들이 화성 아래쪽으로 그려진 가옥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天倫寺本 이후 계속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호림본의 전통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化城喻品』의 인물들로 보이는 화성의 담장 밖으로 그려진 3구의 인물은 공민왕대에 제작된 日本 東京의 根津美術館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듯하나 대나무 숲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羽賀寺本 이후 화성의 열린 대문을 사이에 두고 담장 안 양쪽으로 나타나던 두 마리의 호랑이가 이 사경변상에서는 화성을 향해 달려오는 형상으로 그

려져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2구의 여래 아래쪽 구름 사이에서 화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어서 사격 구도로 언덕을 그려 구획을 지운 다음 그린 「授記品」의 내용에서 많은 시자들이 대왕을 둘러싸고 서 있으며, 대왕은 역시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나 湖林本과 마찬가지로 일산을 받쳐 든 시자는 보이지 않는다. 의자의 양식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대왕 앞에 보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며, 이 보탁 좌에는 대왕의 음식을 감식하는 무리들이 앉아 있는 점은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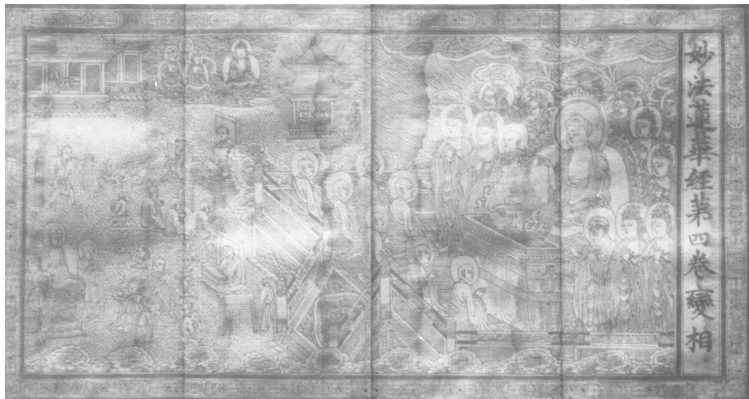
다)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화성과 화성 옆으로 그려진 삼존상과 그 앞으로 3구의 합장한 인물이 그려져 있는 부분과 화성의 문에 걸쳐 물을 내뿜고 있는 용과 도룡이를 입은 2구의 인물, 도룡이를 입은 사람 곁으로 그려진 도사 등은 국립중앙박물관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화성 담장 향우에 그려진 4구의 인물은 호림본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다. 이들 4구의 인물은 집 뒤편의 숲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동산에 수풀 둘러있고 중문과 누각에 남녀들이 충만하고」라는 화성에 도착한 내용을 그린 것으로 湖林本의 전통이라 하겠다.

(4) 제4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향우의 설법도는 제3권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방사선으로 퍼져 나간 빛을 파상형 문양으로 보다 넓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여래를 중심으로 한 聖衆은 제2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져 있고, 아래쪽의 수미단 부분은 3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져 있다.

聖衆 옆으로는 탑이 그려져 있는데, 初層에는 二佛並坐像이 그려져 있다. 이는 「見寶塔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佛의 설법에 의해서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天倫寺本 이후의 모든 사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보탑 옆으로는 작은 산이 연이어 있는 형상을 파도문양 같이 그린 한 가운데 1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고, 그 뒤로 구름을 탄 3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提婆達多品」 중에 「문수사리보살이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허공에 머물더니, 영취산 위로 내려오니--」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이 사경변상보다 앞선 시대의 사경변상은 여래의 군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集線紋으로 곡선을 여러 번 굴절한 구름을 표현한다.²¹⁾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혼

21) 상계서, pp.256-262.

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전의 사경변상에서는 「見寶塔品」의 내용 중에 다보여래의 보탑을 공양해서 운집한 여래의 분신으로서의 十方의 諸佛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그린 만큼 여러 번 굴절한 集線紋을 사용하여 그리고 있었지만, 이 사경변상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전의 사경변상에서는 여래의 分身佛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해석하였다면, 이 사경변상에서는 分身佛들이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경전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향좌에 그려진 가옥에는 침상에 누워 있는 1구의 인물이 그려지고, 그 침상 곁으로 1구의 인물이 서 있는 형상을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五百弟子受記品」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天倫寺本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²²⁾

이 저택 아래쪽에는 마른 풀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인물이 그려지고, 그 앞으로 화염이 그려지며, 화염 맞은편으로는 양손으로 무엇인가 들고 화염을 향해 뛰어들려는 모습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見寶塔品」의 내용의 마지막 계송부분을 그린 것으로 「惡世에 태어나서 단 한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劫燒에 마른 풀을 엮고 들어가도 육체가 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그림의 내용은 天倫寺本 이후 계속되어 온 전통²³⁾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그림 옆으로 보타 위에 법화경 경전을 쌓아 놓고 설법하고 있는 인물과 그의 설법을 듣고 있는 3구의 인물은 「法師品」의 내용을 그린 것이며, 그 아래쪽으로도 이와 같은 모티브로 그려진 장면이 있는데 이는 「勸持品」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天倫寺本 이후 계속되어 온 내용²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좌 가장 아래쪽 구석에 삼존이 그려져 있고, 이 삼존 앞으로 무엇인가 공물을 바치는 인물 1구와 이 인물과 연결되어 피어오르는 구름 위에 앉은 인물이 투시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畜生龍女의 성불 장면을 그린 「婆達多品」의 내용으로 天倫寺本 이후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2) 상계서, p.257.

23) 상계서,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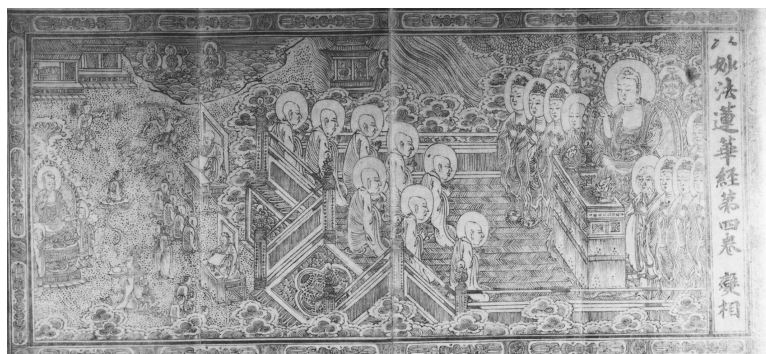
24) 상계서, pp.258-259.

나) 禪王 11년(138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所藏本



湖林本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湖林本과 다른 점이 있다면 『五百弟子受記品』의 내용에서 자고 있는 친구만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석을 친구에게 넣어준 입상의 주인공은 天倫寺本과 湖林本을 제외하고 전부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경도 이러한 양식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다)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이들 사경들은 양식적으로는 변화를 보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湖林本이나 國立中央博物館本과 거의 같은 모티브로 그려져 있다.

라) 世宗 4년(1422)에 제작된 동국대 소장 廣德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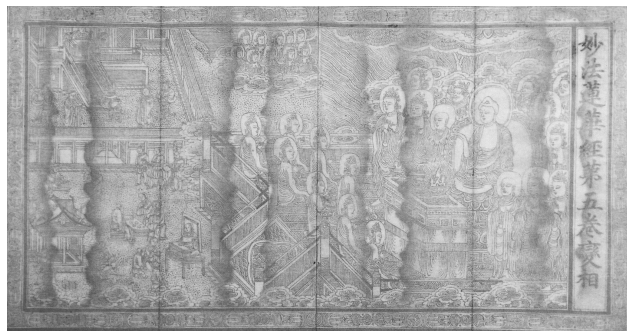
이 사경에 이르면 내용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설법도의 아래 부분인 수미단이 3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져 수미단이 더 넓게 표현되고 있다. 그 위쪽에 빛을 발하는 보탑이 2동 겹쳐 그려지진 점, 그 옆으로는 횡선을 그어 점을 찍고, 그 아래쪽을 파도문으로 가득 채운 점은 일단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提婆達多品」중에 「뎡수사리보살이 용궁으로부터 솟아올랐다」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인 듯하다.

「見寶塔品」중 친구에게 몰래 보물을 준 내용이나, 「見寶塔品」의 마지막 계승부분의 타오르는 불꽃을 가운데 두고 마른풀을 어깨에 지고 불로 뛰어 들려는 내용은 생략되고, 「법화경 경전을 쓰게 하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게 하며, 그 뜻을 해설하고 법과 같이 수행하면 이 모두가 부처님의 위덕이 된다」는 「法師品」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앞에는 탁자를 놓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설법하는 僧形과 이 승려를 향해 설법을 듣고 있는 인물이 각각 5구씩이 두 곳에 그려지고 있다. 이로써 이 시대에 이르러 사경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좌 아래쪽에는 「提婆達多品」의 畜生龍女の 성불 장면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데, 상술한 사경변상화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옆으로 예불하는 무리들이 그려져 있다. 여래는 앞에서 언급한 사경변상과는 달리 향좌를 향하고 있고, 보살들은 대칭적인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5) 제5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향우의 설법도는 제2, 3, 4권과 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빛을 나타내는 扇形의 파상문은 좀 더 넓어진 느낌이다.

聖衆은 제2페이지 중반까지 아래쪽의 수미단은 제3 페이지의 4 분지 3 까지 그려지고 있다. 중반 수미단의 위쪽에는 황선으로 처리된 地文 위에 구름을 탄 一群의 보살이 하강하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從地涌出品」의 「娑婆世界の三千大千의 국토는 땅이 모두 흔들려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부터 무량천만억의 보살마하살이 동시에 용출된다」라는 장면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우 상단의 구석에는 「安樂行品」의 내용 중, 轉輪王의 髻中明珠의 내용을 그린 크고 화려한 저택이 보이는데, 건물 안에는 보탁을 앞에 두고 轉輪王 앉아 있고, 그 계단 옆 양쪽으로 각각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1구의 인물이 계단을 막 오르려는 형상을 그려져 있어, 轉輪王이明珠를勇者에게 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륜왕의 저택 담장 밖으로 용자를 태워 갈 말과 마부가 각각 2구씩 그려진 점은 忠惠王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本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말과 종자가 그려진 아래쪽에는 보탁을 앞에 놓고 원형의 의자에 앉은 인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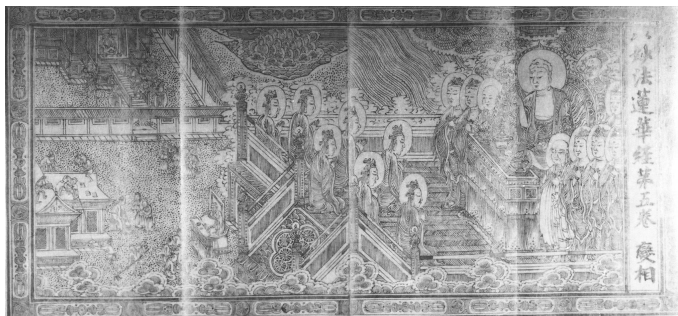
25) 상계서, p.263.

그 맞은편에는 2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보타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이는 「如來水量品」중에서 良醫妙藥을 그린 것이다. 天倫寺本 · 鍋島家本 · 根津美術館本에 이르기 까지 良醫 뒤쪽으로 시자가 그려지던 것이 이 사경변상에 서는 시자가 사라진다. 그러나 탁자 위에 놓인 것은 약 항아리라는 것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려져 있다.²⁶⁾

그 아래쪽 옆 수미단의 계단 옆으로 운문으로 가득 찬 속에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은 승려형의 인물과 그 옆으로 상좌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安樂行品」중, 항상 안락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으라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향좌의 하단에는 「分別別功德品」의 내용인 「젊음이 멸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서 스스로가 쓰든지 사람을 시켜서 쓰도록 한 바가 있으면, 그것은 승방을 세워 赤梅檀을 가지고 여러 전당을 만드는 것이 되느니라」라는 내용을 그린 塔堂을 건립하는 장면이다. 탑당을 나타내는 건물이 꼭자형으로 나타나는 등 양식적으로 변화를 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다.

나)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從地涌出品」의 내용이나, 「安樂行品」의 내용 중 轉輪王의 髻中明珠의 내용은 호림본과 같다. 「如來水量品」중에서 良醫妙藥의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 중간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불교교리로는 의

26) 상계서, pp.262-267.

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범화경의 수호에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分別別功德品」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그려진 점도 호림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湖林本에서 시작된 곡자형의 가옥 형상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다) 朝鮮 世宗 4년(1422)에 제작된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湖林本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如來水量品」중에서 良醫妙藥의 내용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6) 제6권 변상내용

가) 禡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이 寫經變相은 「如來神力品」의 大神力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석존의 육계로부터 발하는 광명 안에 10동의 집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일체의 모공으로부터 한량 없는 색광을 발해서 두루두루 시방의 세계를 비춘다」는 내용을 그린 장면으로 天倫寺本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다만 분광된 아래쪽은 天倫寺本 보다는 羽賀寺本과 鍋島家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天倫寺本에서는 횡선으로 바탕을 처리하고 그 위에 관을 쓴 인물이 연화좌 위에 앉아 있고, 그를 향해 예불을 올리는 3구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으며, 연이어 천신이라고 생각되는 2구의 인물이 휘날리는 구름을 타고 있고, 허공에 떠있는 궁전이 그려져 있었다.²⁸⁾ 이에 비해 羽賀寺本이나 鍋島家本에서는 전통을 따라 靈鷲山을 그리고 있다. 이 사경변상도 羽賀寺本이나 鍋島家本의 전통에 따라 영취산을 그리고 있지만,²⁹⁾ 그 속에 多寶·釋迦佛을 그려 넣고, 또한 탑 앞에는 이를 예불하는 2구의 神衆像을 그려 넣고 있어³⁰⁾ 「如來神力品」의 내용을 보다 소상히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쪽으로 「隨喜功德品」의 내용 중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法華經』을 교설하는 인물이 2구 그려지고, 그 앞으로 3 구씩의 청취자를 그린 점은 天倫寺本 이후 鍋島家本에 이어진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常不輕菩薩品」 내용 중에 한 승려가 몸을 틀어 뒤돌아보며 도망가고 그 뒤를 쫓으며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그린 장면도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³¹⁾

「常不輕菩薩品」 내용이 그려진 향우에는 수미단 위쪽으로 원형의 연화좌위에 앉은 인물이 향좌로 그려지고, 그로부터 향우에는 이를 향해 앉고 선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연화좌 위에 앉은 인물의髻髮로부터 발한 빛이 탑으로 연결되고 있

27) 상계서, p.267.

28) 상계서, pp.267-268.

29) 상계서, pp.269-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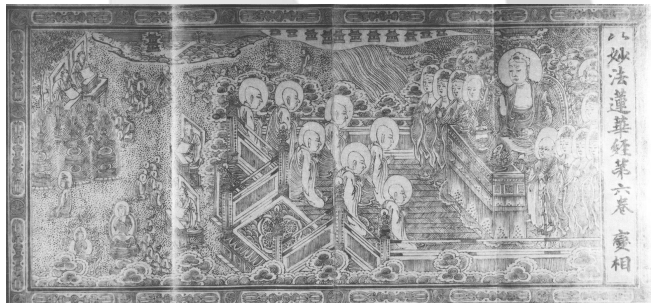
30) 其中衆生, 天龍・夜叉・乾達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那伽・人非人等 以佛神力故皆見此 娑婆世界 無量無邊 百千億衆寶樹下獅子座上諸佛 及見釋迦牟尼佛 共多寶如來 在寶塔中坐獅子座.

31) 상계서, pp.267-271.

다. 이는 「隨喜功德品」 중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내용을 들으면 후에 하늘궁전에 오르리라」는 내용과 「만약 일부러 僧房에 가서 법화경을 듣고자 하여 잠깐이라도 듣고 환희하면 후에 천인 중에 나서 천궁을 타리라」는 내용을 합쳐서 그린 것으로 보인다. 根津美術館本の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根津美術館本에서 제3페이지 수미단 위쪽에 두 팔을 팔소매에 넣고 연화좌 위에 앉은 인물의 머리로부터 퍼져나간 빛이 만들어진 구획 속에 탑을 그려 넣던 양식을 좀 더 간략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²⁾

그 아랫단 수미단 모서리 쪽에 그려진 등받이가 있는 높은 의자에 앉은 인물과 그 앞으로 앉은 3구의 인물은 역시 「隨喜功德品」의 내용 『法華經』을 교설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는 「藥王菩薩本事品」에서 설해지고 있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향좌에는 측면향의 여래와 그 앞으로 좌상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는 여래와 약왕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옆으로 연화보좌에 앉은 여래를 향해 燒身供養을 하는 보살은 약왕보살의 전신인 喜見菩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향좌에는 2동의 탑과 燒指供養을 하는 보살이 한 덩어리로 그려져 있는데, 燒指供養의 보살은 「藥王菩薩本事品」의 내용이고, 2동의 탑은 「常不輕菩薩品」의 「佛이 멸한 후에 보살은 사리를 모아서 팔만 사천 탑을 조립해서 공양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나)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32) 상계서, p.271.

다) 世宗 4년(1422)에 제작된 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 廣德寺本



이들 來蘇寺本이나 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 廣德寺本은 사경변상의 배치가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양식적면에서 거의 대부분 湖林本에 따르고 있다.

(7) 제7권 변상내용

가) 禪王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所藏本



향우의 說法圖에는 여래의 계주로부터 발한 빛 속에 가옥들을 그려 넣고 있는데, 이는 「서품」 중에 「眉間으로 놓은 광명이 동방으로 멀리 비취 1만 8천 나라마다 금빛으로 찬란하니, 아래로는 아미지옥에서 위로는 有頂天까지 ... (하략)」라는 대

목을 그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제6권의 『如來神力品』의 大神力을 나타내는 석존의 육계로부터 발하는 광선으로도 볼 수 있다.

聖衆은 제2페이지까지 그려지고, 수미단은 제3 페이지 중간까지 그려져 수미단의 크기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향좌에는 제3페이지 위쪽에는 『妙音菩薩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초층에 二佛並坐의 보탑이 그려지고 있는데, 妙音菩薩이 보탑을 향해 예불을 올리고 있는 것은 天倫寺本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보탑의 향좌에는 시자를 거느린 보현보살이 코끼리에 타고 탑을 향하고 있는 모습도 天倫寺本이후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보현보살 바로 옆으로 남녀가 앉아 있는 초옥이 그려져 있다.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7난구제의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같은 『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라도 염원과 관계된 것이다. 자손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觀世音菩薩을 염송하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³³⁾

이 초옥을 중심으로 사격구도로 산언덕을 설정하여, 그 향좌에는 靈鷲山을 그리고 그 속에 『觀世音菩薩普門品』의 觀音菩薩을 그려 넣고, 그 향좌에 雷神의 아랫부분의 일부만 그려지고, 그 아래쪽으로 도롱이를 입은 인물을 그리고 있어, 7난구제의 내용 중에 「구름에서 천둥 일며, 번개 치고 큰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삼시간에 사라지며…」라는 내용이다. 이 녀신 옆으로 단애 끝에서 막 뛰어내리려는 인물과 단애에서 떨어져 구름 위에 얹혀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다 해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라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면은 羽賀寺本 이후

33) 이에 대해 日本의 美術史學者 山本泰一씨는 德川美術館 所藏의 柑紙金字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에 관한 논문 「見返し繪のあり中國の柑紙金字法華經」(德川美術館刊行 『金鱗叢書』 第八輯)에서 日本 德川美術館 소장의 中國 元時代의 작품으로 인정 할 수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제 7권의 변상의 한 가운데 그려져 있는 보탑 바로 아래쪽으로 그려진 누각마루에 위에 두 남자가 앉아 있고, 이들 두자 사이에 음식상이 놓여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觀世音菩薩普門品』 중 저주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을 외우면 그 해가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인 「呪詛諸毒藥, 所欲害身者 念彼觀音力還著於本人」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 시켜 생각한다면 『觀世音菩薩普門品』 중에 몸을 해치는 저주와 독약으로 병든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향좌 맨 위쪽에 그려지기 시작하였는데,³⁴⁾ 이 사경변상에서도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앞선 사경변상들에서는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사람을 그려 넣은데 비해, 이 사경에서는 구름 위에 앉은 형상으로 그려 뱀으로써 단애 끝에 떨어져도 공중에 머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합리적인 상상력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 단애의 인물 밑으로 불을 든 인물과 그에 마주 대하고 있는 2구의 인물을 그리고 있어, 불의 재난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 향우에 뱀에 쫓기는 인물과 호랑이에 쫓기는 인물을 아래위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는 재난을 그린 것이다.

그 아래쪽으로 삼각구도로 그려진 2구의 인물과 짐을 앞에 놓고 비는 인물들은 도적의 난을 그린 것이며, 다시 그 아래쪽에 형벌의 재난을 그린 것으로 감옥의 일부가 보인다.³⁵⁾ 그 향우에는 연화좌 위에 앉은 여래와 이를 경배하는 3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鍋島家本에서 이미 나타난 장면으로³⁶⁾ 『陀羅尼品』의 다라니의 신주는 『法華經』을 가진 사람을 옹호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여래상 곁으로 『妙莊嚴王本事品』에 나오는 바라문의 아들인 淨藏 淨眼 두 왕자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머리와 발아래로 물과 불을 뿜어낸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나) 禍王 11년(138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所藏本



34) 상계서, p.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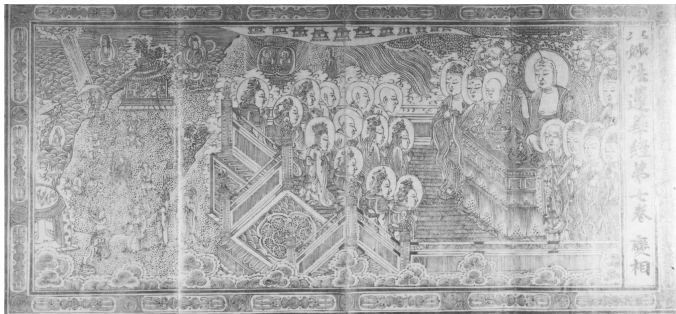
35)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원통형의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상계서, p.276.

호림본과 내용에 있어 거의 비슷하다. 영취산에 그려 넣었던 觀音을 횡선으로 처리된 바탕문양 위에 그린 점은 이전에 제작된 사경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음이 보탑을 향하고 있는 점은 이 寫經變相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寫經變相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형벌의 재난이 그려진 옆으로 원통형의 감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감옥에 관한 고려시대 기록 중에 감옥을 상징하는 圓扉라는 단어가 『三國遺事』 『三所觀音 衆生寺』 조에 보인다.³⁷⁾ 圓扉가 周시대의 감옥을 뜻 하는 圜土의 문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원통형의 감옥이라는 뜻은 아니다.³⁸⁾

禍王 이후 갑자기 원통형의 감옥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

다) 朝鮮 太宗 15년(1415)에 제작된 來蘇寺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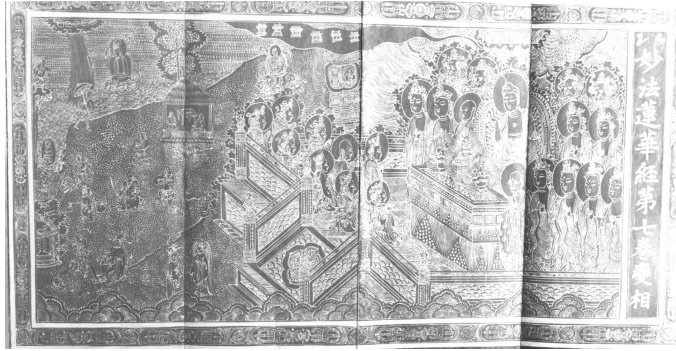
초옥을 중심으로 사격구도로 산언덕을 설정하여, 그 좌측에는 靈鷲山을 그리고 그 속에 「觀世音菩薩普門品」의 觀音菩薩을 그려 넣고 있는 점은 거의 湖林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觀音은 역시 좌측을 향한 모습으로 그려진 점이나, 맨 아래쪽에 여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天倫寺本 이후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37) 「下圓扉, 將加刑」라는 기록이 보인다.

38) 圓扉는 바로 圜土의 문을 의미하며, 圜土라고 함은 감옥을 뜻하는 것으로 『周禮』(十三經注疏3, 『周禮』, 藝文印書館引行, 卷第十二, 比長조)에 의하면 주변을 등글게 둘러싼 감옥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寫經變相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형벌의 재난이 그려진 옆으로 원통형의 감옥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⁹⁾ 그러나 원통형의 감옥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상당히 어렵다.

라) 朝鮮 世宗 4년(1422)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廣德寺本



이 사경은 내소사본과 거의 같은 양식이다. 다만 원통형의 감옥이 조금 작게 그려진 점이 다르다.

향좌 위쪽 부분은 제4권에서 보여주던 점선으로 나타낸 횡선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禰王 이후에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4질의 사경을 분석해 본 결과 향우의 내용은 각권에 따라 조금씩 그림의 내용이 틀리기는 하나, 향우는 기본적으로 설법도의 틀 속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으며, 尙左의 내용 역시 忠肅王 이후 恭愍王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하

39) 원통형의 감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된 점은 원비와 환도라는 의미해석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게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권에 수록된 各品의 내용 중에서 『妙法蓮華經』의 가르침을 가장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설화적 내용을 선택하여 情景적으로 그렸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 그려진 부분이라도 『妙法蓮華經』의 廣宣流布가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교훈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을 골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앞 시대의 그림과 달라진 부분은 당시의 불교사상 및 사회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 사상사 연구에도 이들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法華經』.

『周禮』.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서울: 미진사, 1986.

山本泰一, 「見返し繪のあゝ中國の柑紙金字法華經」(徳川美術館刊行 『金鯨叢書』 第八輯).

K C I